

전일동향

전일대비 4.50원 상승한 1,465.00원에 마감

10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4.50원 상승한 1,465.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50원 하락한 1,461.00원에 개장했다. 하락 출발한 환율은 꾸준한 결제수요 유입에 하단이 지지되며 상승 압력을 받았다. 오후장에서 환율은 결제수요가 엔화, 파운드화 약세에 따른 달러 강세에 연동되어 상승폭을 확대하며 1,465.00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8.2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5.11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61.00	1475.50	1456.80	1465.00	1460.70
	엔화	923.60	935.08	917.43	928.24	-
	유로화	1504.37	1512.99	1492.93	1500.81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08	-4.98	-12.51	-28.76
	결제환율(수입)	-0.65	-4.03	-10.71	-25.36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美 고용 서프라이즈에...1,47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5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65.00) 대비 9.05원 상승한 1,472.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 고용지표 서프라이즈가 촉발한 달러 강세에 상승 압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12월 비농업 신규고용은 25.6만명 증가하며 예상(16.5만명)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실업률은 4.2%에서 4.1%로 하락했다. 또한, 미시간대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3.3%로 전달(2.8%)에 비해 급등했다.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에 연준의 매파 성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며 미 국채금리와 달러는 동반 강세를 시현했다. 미국 2년, 10년물 국채 금리는 각각 11.7bp, 7.10bp 상승하여 4.381%, 4.761%에서 마감했다. 달러인덱스는 고용지표 발표 이후 109.9까지 급등했으며 전일대비 0.5% 증가한 109.65선에서 마감했다. 금일 환율은 고용지표 발 강달러에 연동되어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위험회피심리 고조로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으며, 이는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여 환율 상승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국 미세조정 경계 등은 환율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70.25 ~ 1478.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5.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9.05원 ↑
	■ 美 다우지수 : 41938.45, -696.75p(-1.6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4.49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198 억원